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80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3월 9일)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진정한 '힙한 불교' 연등회서 만나볼까

연등회보존위, 4월 11일 연등회 일정 발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가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리는 연등회에서 MZ세대와 적극 소통을 예고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나는절로 템플스테이를 통해 보여준 불교문화 열풍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4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연등회'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연등회는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약 30만명의 인원이 동참할 것으로 주최 측은 내다봤다.

연등행사의 시작은 오는 4월 1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봉축점등식이 알린다. 올해

4월 17일 봉축점등식 시작으로
종로 일원서 전통등전시회 개최
제등행렬 2000여 동국대생 참여
군승, 군종병 호국쥽 제작 동참
전통문화마당에 MZ체험부스 신설
돌아온 '뉴진 스님'의 EDM난장도

봉축 점등탑은 '황룡사 9층 목탑등'으로 단청의 선명하고 화려함과 전통 채색의 부드럽고 따뜻함이 한지와 어우러져 아름답고 조화롭게 표현했다. '황룡사 9층 목탑등'은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을 밝힌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자장 율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신라 선덕여왕에게 건의해 조성한 황룡사 9층 목탑처럼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세상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세상을 환히 밝힐 예정"이라며 "세종대로와 광화문광장, 종로거리 등에도 가로연등이 설치돼 서울 시내를 환하게 밝혀 봉축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5월 11일 열리는 연등회 어울림마당은 대중과 함께 어울리는 연희누리와 행렬등경연대회 시상식 그리고 연등법회로 동국대에서 진행된다. 40여 개 단체의 어린이율동단, 청소년율동단, 청년율동단과 등단별 연희단 1000여 명이 신나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연등회의 메인 행사인 연등행렬에는 각 참가단체마다 개성과 정성으로 만든 10만여 개의 행렬등과 150여 개의 장엄등이 오후 7시부터 흥인지문에서 시작해 종각을 거쳐 조계사까지 행렬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동국대는 건학위원회의 주도로 재학생 2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렬단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전통등 제작 강습과 지원들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종특별교구는 군승들과 군종병들이 호국의 의지를 담아 등을 들고 참여할 예정이며 지난해에 이어 확대된 시민문화체험단은 종묘공원 앞에서 행렬등을 미리 만들고, 직접 만든 등을 들고 연등행렬에 동참한다. 연등회 홍보대사인 23개국 50여 명으로 구성된 연등회 프렌즈도 관람객 외국인과 함께 행렬에 참여한다.

5월 12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펼쳐지는 전통문화마당에서도 명상마당과 청년MZ마당을 신설해 MZ세대와 소통에 나선다. 청년MZ마당은 △압화체험 △전통놀이체험 △솜사탕·팝콘 무료보시 △단청문양 파우치 채색 △합장주 만들기 △금니사불체험 등 문화부스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인기 프로그램도 섭외하고 있다"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마당을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등행렬 참가단체 연희단이 중심이 돼 인사동과 종로 일대에 다시 한 번 연등행렬이 펼쳐지며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는 연등놀이도 MZ세대라면 놓쳐서는 안 될 이벤트다. 5월 12일 저녁 7시 공평사거리에서 이뤄지는 연등놀이에서는 연희단 공연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진행된다. 특히 1년 만에 연등회를 다시 찾은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이 연등회 노래로 구성된 EDM난장을 펼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서울 종로 일원의 밤거리를 장엄할 전통등전시회는 전시 장소를 청계천에서 열린송현녹지광장, 광화문광장까지 확대했다. 청계천은 4월 24일, 열린송현녹지광장은 5월 2일, 광화문광장은 5월 9일에 개막한다.



尹 대통령 "사회 위해 노력한 불교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을 방문해 국민행복을 기원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불교계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월 7일 서울 진관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단 주요 소임자스님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과 윤 대통령은 대웅전 입구에서 관불의식에 참여하고 대웅전을 참배했다. 이어진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조계종과 진관사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명상을 대중화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해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관사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4월 5일 천태종 대표 사찰인 부산 삼광사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천태종 삼광사의 애국불교를 잊지 않고 받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진우 스님과 윤 대통령이 진관사 아기부처님 관욕의식을 하는 모습. 글=윤호섭 기자, 사진제공=대통령실

조계종 원로회의, '조직개편' 종헌개정안 인준

4월 8일 제76차 회의서
새 원로의원 3인 선출도

조계종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종헌개정안이 최종 절차인 원로회의에서 인준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대종사)는 4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76차 회의를 열고, 종헌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회의에는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18명의 원로의원 중 14명이 참석했다.

원로회의는 비공개 회의에서 종헌개정안 인준 이후 중앙종회 임시회서 통과된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대상자는 △동훈·오철·도서 스님(직할) △종일·성법 스님(용주사) △성대 스님(동화사) △돈증 스님(은해사) △도현 스님(해인사) △덕운 스님(쌍계사) △수불 스님(범어사) △원행 스님(금산사) △원진·일수·정연 스님(백양사) △종국·명섭·종열·진만·종고·종걸 스님(화엄사) △화범 스님(봉선사) 등 21명이다.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대상자는 △일수·혜윤·본각·혜원·상덕 스님(직할) △정엽 스님(월정사) △상덕 스님(직지사) △혜강 스님(해인사) △경희 스님(통도사) △능인 스님(봉선사) 등 10명이다.

이 밖에 새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은해사 돈명 스님과 불국사 종우 스님, 화엄사 종열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돈명 스님은 1969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사회국장, 조사국장을 비롯해 흥국사 주지,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박물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법계위원과 은해사 회주를 맡고 있다.

종우 스님은 1980년 불국사에서 월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4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선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포항 오어사 주지를 맡고 있다.

종열 스님은 1965년 내장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5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0대, 제13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호법부장, 호계원 초심호계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직능대표선출위원을 맡고 있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회의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 종단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정이 필요하다. 총무원은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행정을 제대로 하고, 각 교구는 교구본사주지를 위시해 잘해야 한다"며 "조직 속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원로들도 굳건히 중심이 돼 종단이 힘을 받아 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집행부는 원로 대종사님들의 수승한 덕화와 자애로운 지도에 힘입어 종단의 안정과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후학들에게 관심과 지도를 내려주시면 종단의 지남으로 삼아 늘 수행 정진하고 불교중흥의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원로회의는 회의가 끝난 뒤 최근 강진 피해를 입은 대만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아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인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1주년 기념법회**

천일기도 입재 1년(4.28)을 맞이하여 다라니기도와 기념법회를
갖습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기도동참으로
무량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68(2024)년 **5월 4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
● **식 순** : ㅇ다라니 기도 • 발원문 • 정근축원
ㅇ기념법회
– 삼귀의 • 반야심경 • 경과보고
– 인사말
– 법문 : 종천스님(불국사 주지)
– 축사(내외빈)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도접수

천 일 기 도 : 2023. 4. 28(금) ~ 2026. 1. 21(수)
기 도 법 사 : 환풍스님 • 여진스님 • 선우스님
기 도 신 청 : 전국 사찰 종무소(수시접수) 또는 아름다운 동행
기도동참비 : 100일 10만원 / 1년 30만원 / 1000일 100만원 (선택)
기 도 접 수 : <기도접수증> 사본을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02-6273-0108 (아름다운 동행)
팩스 02-737-9195 (아름다운 동행)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7층 **문의** : 02-737-0862 / 010-9454-0862(문자만 가능) **FAX** : 02-730-0887

열암곡 순례 정보